

<말씀> 요11:17~23

1.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사로에 대해 어떻게 말하였고 예수님은 실제로 마르다와 그 동생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요11:3,5,)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실을 통하여 함께 나눠봅시다. (요12:3, 눅10:42)

\* 생각하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써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써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2.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11:6)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15,25,42)

3.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가고자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생각해 봅시다. (11:7)

4.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22:21~24)

5.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11:33~35)

6.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울었다고 요한복음 20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20:13)

7.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빌3:10)

\* 적용: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활신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기 도>

1.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써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주시고, 응답이 더디고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 <설교요약>

### 1.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이를 동안 더 머무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주목해보겠습니다. 나사로 가족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됩니다.(요11:3) 예수님은 유독 이 가족을 사랑하셨고 그들 중 나사로가 병이 심해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지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오 리(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머무셨습니다.(20:4~6) 이를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20:7) 원래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 혹은 ‘우리 베다니로 가자’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커다란 범위로 “유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전 유대의 문제요, 이스라엘의 문제요, 인류의 문제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고 깨우려 간다는 말을 물리적 잠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말씀에 둔했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수미쌍관법(首尾雙關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건에 앞서 본 목적을 기록한 후 설정한 목적이 사건의 마지막에 동일하게 등장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한 의도로 나사로 사건을 다루셨습니다.(11:15, 42)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내려 하는 주제입니다.

### 2. 마르다와 마리아는 옳은 고백을 하였지만, 그것이 곧 신앙은 아니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마르다, 마리아와 만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오라비를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11:21,32) 그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받아들였으나 시공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온전한 신앙고백을 한 듯 보이지만, 부활을 먼 훗날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11:22~24) 신앙이 현실과 괴리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만점짜리 고백을 하였으나, 그 고백이 신앙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문제와 부딪힐 때 고백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 3. 부활신앙은 먼 훗날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권능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11:35)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여 울고 있는 인생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11:33) 예수님은 지금도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죽음의 권세 앞에 울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비통히 여기십니다. 고백과 신앙이 괴리된 것을 비통히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십니다. 주님은 드디어 무덤 앞에서 죽은 자가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울었습니다.(요20:11) 빈 무덤이어야 정상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잘못된 부활신앙입니다. 11장에서 마리아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였습니다.(11:39) 그들은 부활 신앙을 먼 훗날 내게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11:41)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사로의 부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다시 강조하신 후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둘러선 무리를 믿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도 죽음 후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매일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로마 황제의 통치에 사용되던 “권능”이란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빌3:10)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매일 삶 속에 고백되어야 합니다.